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말씀자료

2025. 7. 28.(월) 10:00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여의도 금투센터 8F)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인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자리해 주신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장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찰청,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를 포함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현황]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듯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역할”이라는 각오로
수많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을 악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문제 역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AI·딥페이크기술과 가상자산·간편송금 등을 악용한 편취 등으로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를 통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공공기관 도움을 차단하는
“스미싱”등 변종수법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2만여명의 국민 분들이
9천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당하셨고,
금년에는 피해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심리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현 제도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범정부, 금융회사,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응 방향]

금융위는 과기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예방 - 차단 - 구제 - 홍보” 각 단계별로
전문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예방·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고
내실있는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스미싱 등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빠르게 강구하겠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구제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실효성 있게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최신 범죄수법에 대응해 스스로를 지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AI플랫폼(가칭)]

오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수법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 통신 - 수사 각 분야간
체계적인 정보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위 - 과기부 -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하에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긴급한 범죄를 신속히 공유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AI 패턴 분석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 파악, 사전 탐지·예방 등에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이
범죄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기존 방식대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의 고수”의 색다른 접근법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용기있게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실효성있게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끈질기게” 보이스피싱을 근절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